

컬만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 경우, 상황과 성격을 단순화할 수밖에 없는 뮤지컬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깊은 사유를 보여주는 연극을 만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소극장 연극을 넘어서

우리 연극에서 소극장의 비중은 매우 크다. 해화동 일번지처럼 누추하고 남루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젊은 연출가들의 본산이 된 곳도 있고,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이나 자유소극장처럼 자유로운 연출적 상상을 가능케 하는 극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 연극의 현실은 아르코예술극장이나 자유소극장을 중극장으로 여겨야 할 만큼 작은 극장 위주로 전개되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많은 신진 연극인들의 입문을 가능케 하지만 다른 한편, 연출가와 작가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나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연출가나 극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대극장은 자리만 편했지 좋은 연극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와 함께 언제나 극장과 배우들을 염두에 두고 작품

을 써서 바로 무대화하는 연출가, 그리고 이들과 그룹을 이루는 작가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독자적으로 희곡을 써서 무대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작가들에게는 극장의 크기나 연출가의 상상력 제한이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 좌석이 불편하고 무대가 제한되는 작은 극장이기에 공연은 1시간 반을 넘기기 힘들고 짧고 단순한 공연에서 담아낼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희곡이 독자적으로 출판되어 독자를 접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공연과 연결되지 못하는 희곡 작가들은 사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2004년부터 일기 시작한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건설 붐으로 이제는 대학로, 혹은 서울을 벗어나면 중극장 이상 규모의 극장들이 많이 있다. 이 극장들이 신진과 중견 작가, 연출가들의 예술의 폭을 넓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소극장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한 작가, 연출가들이 소극장 규모를 넘어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 큰 극장에 접하여 억지로 규모를 늘려 무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연극적 상상력의 방향을 달리하여 무대를 장악하는 새로운 개념의 연극 '들' 을 접하고 싶다. ●●

**창작작품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되는
한해를 기대하며**

박성혜 | 무용평론가

혹자는 화제작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2005년에 초연된 국내 무용 작품들에 커다란 특징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2006년에도 국내 창작작품에 대해 일정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기대와 목마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를 무용인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2005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다.

한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한해가 다가오는 길목에 서있자니 그간 열심히 공연장을 들랑거리며 본 무용공연들이 무엇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2006년 신년에는 어떤 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러면서 단순한 나열에서 조금 벗어나 올해의 춤 동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데는 생각에까지 번졌다. 혹자는 2005년에 초연된 국내 무용 작품들에 커다란 특징이 없었다고 지적하는데, 좀 더 심한 비약을 하자면 문제작의 부재, 화제작이 없었다는 빗담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제작비와 작품성의 무관함 보여줌

각종 지원금의 성격들이 소액 다건 지원에서 벗어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집중 지원이 허용되기 시작한 첫 해였고 덕분에 한 개인의 창작 무대가 수 천만 원은 기본이요, 심지어 1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화제가 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추이는 당연히 창작일선에 있는 무용가들에게는 좋은 조건이요, 환영할 만한 처사다. 하지만 반대로 막상 기금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담스런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고 심적 부담을 안고 창작에 임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2005년에는 특별한 작품이 없었다는 증론은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무용가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을 주는 의견일 것이다.

반면 2005년은 재미있게도 많은 액수의 기금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보다 그렇지 않은 무용가들의 분투가 돋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한 안성수를 들고 싶다. 작품 <선택>으로 제2회 올해의 예술상 무용 부문에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그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스스로 진화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활성화 사후지원 선정작 안성수의 <선택>

고 있는 안무가다. 또한 이전부터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작가라는 차원에서 그의 이번 수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한 안성수의 수상 작품 <선택>은 비교적 적은 소액의 지원금으로 소극장에서 소박하게 공연되었다는 점은 무척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엄청난 물질·인적 지원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좋은 작품은 결코 제작비 총액과 정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외에도 또 다른 올해의 예술상 수상자인 손인영의 <인편> 역시 소극장 공연이었다는 점을 주시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의 반증은 한 마디로 소문 많고 기대치 높았던 작품보다는 소박하게 작업에 임한 작가들이 수작들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로 풀이하고 싶다.

젊은 무용가들의 국내외에서의 약진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젊은 무용가들의 약진을 들 수 있다. 김윤규, 정영두, 박나훈, 전인정, 김윤진 등 이제 막 서른을 넘은 젊은 안무가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작년도에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했던 김윤규의 활동 역시 주목할 만하고, 작년도에 거행된 '평론가 뽑은 젊은 무용가전'에서 선보여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정영두와 박나훈도 각각 2005년에 새로운 작품을 선보여 어쩌다 잠깐 반짝이는 신인 안무가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검증한 한해였다.

여기에 김윤진도 자신의 개인 공연을 통해 독특한 감성과 작품세계를 선보여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다시 오른 안무가이다. 여기에 2005년 신작인 <침묵하라>에 좋은 평가를 하면서 김윤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싶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인 전인정의 경우 지난 12월에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가 수여하는 NRW상을 받았다. 무용·음악·영화·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단 한 명만을 선발해 수상하는 상을 한국인 무용가가 받았다는 점은 무척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전인정은 현재 독일에서 간행되는 세계적인 무용전문지 『발레탄츠(Ballet Tanz)』에 의해 '주목해야 할 젊은 안무가'로 두 차례 지명되었다. 최근 여러 명의 한국 무용수들이 유명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안무가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 안무가는 무척이나 적다는 차원에서 보면 전인정의 안무가로서의 활동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다 하겠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국내와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은미의 작업 역시 주목하고 싶다. 올해의 경우 작년부터 시작한 <Let> 시리즈가 완결되었는데, 독일 초연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선보인 신작 <Let me change you name?>과 극장 용에서 초연한 <Let me tell you something!>이 각각 시리즈 2와 3으로 완결되었다.

안은미 역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그 발전의 가능성을 새롭게 엿보였다는 차원에서 2005년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더욱이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엄청난 물질·인적 지원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작품 <선택>이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좋은 작품은 결코 제작비 총액과 정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좋은 평을 얻어 유럽 무대로의 적극적 진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를 두고 싶다.

비약적으로 증가한 해외 공연작품

반면 해외의 유명 단체들이 대거 방한한 2005년이였다. 대전예술의전당 초청으로 모리스 베자르가 방한한 것을 시작으로 LG아트센터의 DV8 피지컬 시어터(Physical Theatre)와 벨기에의 안네 테레사 더 케에르스매커(Ane Teresa de Keersmaecker), 그리고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재공연이 있었다. 여기에 미국의 유명 현대무용단인 엘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와 영국 로열발레단이 <신데렐라>와 <마농>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을 소재로 한 피나 바우쉬의 <러프컷(Rough Cut)>, 불쇼이 발레단의 <스파르타쿠스>와 <지젤>,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신데렐라> 역시 중요 해외 공연들이었다. 여기에 국제현대무용제(Modafé)와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그리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좋은 해외작품들이 대거 소개되었다.

이러한 양질의 공연물들이 대거 소개됨은 단순한 관객의 차원에서는 풍성한 볼거리의 제공이었음이 분명하지만 무용 창작자 입장에서는 높아진 관객의 눈높이가 상당한 부담으로 와 닿았을 것이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공연작들과 이에 따른 관객들의 일정 정도의 기대치에 비해 한국 안무가들의 창작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외소해 보이거나 미흡하다는 인상을 떨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안무가들에게는 예술적 완성도에 있어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함과 세계와 예술적으로 같은 시차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 그리고 세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함을 느꼈을 것이다.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혹은 현재 가장 첨예한 담론들을 담고 있는 안무가들의 최신작들이 줄지어 소개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2006년에 무용 관객들을 찾아 올 주요 해외 작품들만 살펴봐도 그러한데, 예술의전당 초청으로 방한하는 벨기에 무용단의 안 파브로를 시작으로 LG아트센터가 내놓는 매튜 본의 <가위손>과 러시아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이 전년도의 여파를 계속 몰아갈 것 같다. 여기에 매년 거행되는 국제현대무용제(Modafé)와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그리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해외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 하니 일정 정도의 수준있는 해외작품들은 다수 확보된 셈이다.

여기에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가 2005년 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제공될 예정이고 이러한 지원의 수혜를 받은 국내 안무가들의 활동도 기대된다. 더욱이 서울문화재단을 비롯,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모습이 본격적으로 새롭게 정비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날이 개선되는 지원과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나날이 높아져가는 관객들의 요구치를 국내 무용가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다가온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창작작품에 대한 일정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예술성에 대한 기대와 욕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를 무용인들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2005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06년이 되지 않을까 싶다. 🎭